

이번 소식에는...

- 은혜 가운데 마무리된 투루라나 성전건축 오픈식 소식
- 한국 방문 일정과 미국 출국 소식



2013. 6.18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olomon Islands

솔로몬 소식

13-4호

(통권 27호)

토요일 밤 집회 시간 시간



토요일 밤 집회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집회전 교회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집회시간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술취한 사람들이 예배중에 소리를 지르고, 금기야 교회 지붕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과 기도를 새벽 4시까지 계속 되었고, 모든 야유는 잠잠해졌습니다. 발전기와 등까지 구입되어 밤에도 부시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수있게되어 감사하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IDI Turarana SSEC Church

- 이번에 봉헌된 투루라나 교회의 이름입니다.
- 담임 목회자: 사이몬 알벗(Simon Albert)
 - 투루라나 출신으로 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수 있는 사이몬 목사님이 SSEC 교단 수타 교구에 의해 지명이 되었습니다.
- 교단: SSEC 교단, 수타교구(Suta Association)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딤후3:15)

주일 오픈식 (Handover Ceremony)

투루라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을을 축복하고 이땅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SSEC 교단의 리더들과 지역국회의원, 그리고 주변의 많은 리더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타교구의 마칭밴드(Marching band)의 인도로 참석한 모든 손님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교회 입구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SSEC 교단의 리더가 대표로 리본을 자르고 손님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교회로 이동하여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1)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사진2)

교회도 가득차고 실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사진3)

투루라나 교회 담임은 사이몬 알벗 목사님입니다. 사이몬 목사님앞에 있는 선물들은 이들의 전통으로 수타 교구의 교우들이 준비한 투루라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물품등을 선물로 주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을 준비하시고 이 지역에 귀한 형제들을 예비하심에 더없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 솔로몬군도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뭐든지 할수있는것을 저 또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4)

5번째 사진 가운데 있는 분은 투라라나 지역 국회의원이고 이날 교회를 방문해 투라라나 지역에 한국돈으로 150만원정도를 후원하였고, 한국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SSEC 교단의 리더 제임스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이곳에 현지 청년팀을 계속 보내 사역을 도울것입니다.



저의 가정의 일정은...

- 6월 27일 한국에 도착 하여
- 7월 22일 안식년을 맞아 시작하는 리버티 신학 대학원(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입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기도제목

1. 매일 매일의 삶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할수 있도록.
2.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가운데 거할수 있도록.
3. 수타교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루라나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4. IDI Solomon Islands 두명의 현지직원이 계속해서 투라라나교회와 NGO를 잘 관리하고 유지를 위해 행정비와 일정금액을 매달 송금할텐데 그 필요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두형제들이 한마음으로 계속 협력하여 나갈수있도록
5.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항공비와 학교 수업료,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6. 바쁜 일정가운데 아이들이 안정감을 잃지 않도록.
7. 가족의 건강을 위해.